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년 2학기 ~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1-13733	이 름	임상우
소 속	서울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2월 15일
작 성 자	임상우 (임상우)

파란 글씨는 예시일 뿐이니 참고만 하되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추후 국외수학후기 공모전 수기부문에 들어가는 내용과 차이가 없으니, 미리 준비해도 좋습니다. 빨간 글씨는 삭제하고 제출하고, 항목 추가/삭제 가능, 사진가능.

I. 교환 파견 동기

1. 교환학생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고자 했던 목적/목표 등

저는 독일이 공학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해 왔고, 공대생으로서 독일의 공과대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의 수업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수업 분위기나 과제 방식, 시험 방식 등 전반적인 학습 환경을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제 시야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생각하는지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독일은 공용어가 독일어이지만, 대학에서는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교환학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영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경험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국가/지역/학교 선정 이유와 나라/지역/학교 특징 소개하기

저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TUM)을 파견 대학으로 선택했습니다. TUM은 독일 내에서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가 강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 학생 비율도 50퍼센트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영어 강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TUM 내에는 입자 가속기와 원자로 연구 시설이 있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뮌헨은 독일 내에서도 생활 환경이 안정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어, 학업에 집중하기에 적합

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인 대신 치안 부분도 유럽 내에서 상위권이어서 더욱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입학허가서 수령 이후 비자를 받기까지 준비할 내용 등)
2. 숙소 종류와 지원방법(교내 기숙사, 교외 기숙사,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신청은 입학허가서를 받는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입학허가서가 나온 시점이 학기 중 시험 기간과 겹쳤고, 기말 대체 과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비자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국 전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독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할 경우, 독일 현지에서 residence permit(거주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허가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일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쉥겐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독일 밖으로 출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즉, 체류는 가능하지만 이동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재정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슈페어 콘토(Sperrkonto, 차단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차단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만 약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자 신청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하려면, 입학허가서를 받자마자 슈페어 콘토부터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거주허가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는 무조건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숙소 종류와 지원 방법

TUM의 경우 뮌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생 기숙사 협회(Studierendenwerk München Oberbayern)가 있으며, 학교별로 개별 기숙사를 운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들이 이 협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기숙사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TUM 지원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 지원 과정에서 기숙사 관련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뮌헨 내 기숙사의 경우에는 개인 주방과 개인 욕실이 있는 1인실이 대부분입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수강정정, 수강취소 방법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있으면 소개하기
3. 학습 방법(읽을 거리가 많은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
4. 외국어 습득 요령(현지 언어 공부했던 방법, 현지 친구 사귀기 등)
5. 여러가지 학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연구실에서 인턴하기, 외국 기업에서 일해보기 등)

수강 신청 및 수강취소

TUM의 경우 수강신청에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과목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쟁이나 선착순 신청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는 과목도 수강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 두 과목 중 하나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시간표가 겹치게 신청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출석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강의도 많아 수업 운영 방식은 비교적 자율적인 편입니다.

다만 TUM에서는 수강신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험 신청과 시험 취소입니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시험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공식적으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험 취소(exam de-register)는 사실상 수강취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 취소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학기 기준으로는 2월 1일까지 시험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학습 방법

학습 방법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강의 자료로 제공되는 PPT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는 충분했습니다. 시험 역시 강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는 편이었습니다.

독일 수업에서 특징적이라고 느낀 점은 대부분의 강의에 exercise 수업이 따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수식으로 배운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강의만 듣는 것보다 exercise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보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니다

현지 친구 사귀기

우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는 Culture Creatures나 Party Animals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에 떨어져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TUM Erasmus나 TUMi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buddy program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환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교적 편하고, 주 언어도 영어로 진행되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활동으로는 ZHS를 추천합니다. ZHS는 TUM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으로, 체육 동아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종목이 매우 다양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교적 독특하다고 생각한 해리포터의 퀴디치 종목이 있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ZHS 활동은 일회성 행사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기에 좋았습니다. 일회성 모임이 부담스럽거나 지친 경우에는 ZHS와 같은 정기 활동이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2. 현지 물가 수준(당시 환율,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 간식비, 마트에서 장보기 등)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대중교통, 통신 등)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교환학생 모임 등)
5. 안전 관련 유의사항(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지, 도보 이용할 때 주변을 신경쓰기 등)
6. 여러가지 파견 생활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신만의 내용들

가져가면 좋은 물품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챙겨가면 좋겠다고 느낀 물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외국 친구를 사귀었을 때 가볍게 나눠줄 수 있는 한국 간식을 추천합니다. 약과처럼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간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교환학생 기간 중 피부에 작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질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이소 필터 샤워기를 사용했는데,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식재료의 경우, 기본적인 것들은 go asia와 같은 아시아 마트나 한인마트에서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육수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멸치 육수용이나 사골 육수용 코인 육수는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장판이나 밥솥을 가져가야 한다는 글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전자제품은 독일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Kleinanzeigen**이라는 중고 거래 어플이 있는데, 한국의 당근마켓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필요한 생활용품은 이곳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챙겨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숙사에 기본 인터넷이 제공되더라도,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 개인 공유기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물가

식료품을 마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기본 식재료 가격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레스토랑 등 외식 물가는 한국보다 확실히 높은 편으로, 체감상 2~3배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체감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비자를 신청할 당시 환율은 1유로당 1,600원 초반이었는데, 이후 1,73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환율에 따라 생활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교통비는 도이칠란드 티켓(Deutschlandticket)을 학생 요금제로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이 티켓을 이용하면 독일 내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ahn, U-Bahn, 트램, 버스뿐만 아니라 regional 열차(한국의 무궁화호와 비슷한 개념)도 추가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장거리 고속열차(ICE)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일 내 여행을 다니기에는 충분히 편리한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의료 및 보험

저는 TK(Techniker Krankenkasse)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생활했습니다. 보험료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약(테어민)을 잡아야 하고, 독일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 정도는 병원을 가지 않고 자연 회복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뮌헨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당일 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생각보다 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예방접종 등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다실 9 접종이 무료이므로 여성 분들뿐만 아니라 남성 분들께도 꼭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전 관련 유의사항

저는 뮌헨 중앙역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은 뮌헨 내에서는 비교적 치안이 좋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새벽에 이동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한국만큼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 유럽 도시를 여행해 본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뮌헨은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였고, 새벽 시간대에는 홈리스가 돈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혼자 다니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2명 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주의만 지킨다면 큰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교환학생 참여 전과 후 달라진 점/교환학기를 보내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등
2. 귀국하고 나서 현지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향후 미래 계획 등
3. 전반적인 자신만의 소회를 풀어 쓰는 항목

처음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는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혼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외국이라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또한 향후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저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환학생은 일종의 시험과 같은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어락에 익숙하다 보니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 곤란했던 적도 있었고,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계산할 때마다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독일어를 잘하지 못해 독일어만 사용하는 가게 직원을 마주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겪으면서 오히려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

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대부분의 독일 분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국 직전인 지금 시점에 돌아보면, 교환학생 기간은 제게 단순한 학업 경험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본 경험은 앞으로 어떤 곳에서 지내게 되더라도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향후 해외 유학이나 연구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이미 한 번 부딪혀 본 만큼 이전보다 덜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걱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 꼭 한 번 경험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적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겪으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를 한 단계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